



CENTER FOR  
BIBLICAL WORLDVIEW

낙태 반대 참여를

# 위한 성경적 원칙

저자: 데이비드 클로슨



## CENTER FOR BIBLICAL WORLDVIEW

### 우리의 사명

성경적 세계관 센터의 사명은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게 하고, 가족, 지역 사회, 공공 광장에서 신앙을 발전시키고 수호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 우리가 믿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 분 자신이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무오하고 오류가 없으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이 다음을 포함하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가장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해답을 제시한다고 믿습니다.

-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 세상에 어떻게 잘못되었습니까?
- 희망이 있습니까?
-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는 사람의 믿음과 행동이 성경과 일치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성경의 진리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할 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낙태 반대 참여에 대한 성경적 원칙:  
인격, 성경, 교회 역사  
저자: 데이비드 클로슨  
© 2022 가족 연구 위원회  
모든 권리 보유.  
미국에서 인쇄됨

# 낙태 반대 참여에 대한 성경적 원칙:

인격, 성전,  
및 교회 역사

저자: 데이비드 클로슨

낙태는 미국에서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고 민감한 도덕적, 정치적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대신 1973년 로(Roe) 대 웨이드(1973) 판결에서 낙태가 미국 헌법에 명시된 "사생활의 권리"에 의해 보호된다고 결정하면서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sup>1</sup> 비록 법원은 49년 후 돕스(Dobbs) 대 잭슨 여성 건강 기구(2022)에서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sup>2</sup>고 선언하면서 과정을 뒤집었지만, 심지어 로(Roe) 판결이 뒤집힌 후에도, 낙태는 미국 대중 담론의 주류이자 정치 캠페인의 결정적인 이슈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진영들 중 하나에 속합니다. 여성의 신체적 자율성과 임신을 만삭까지 지속할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종종 "찬성" 입장으로 특징지어집니다.<sup>3</sup> 다른 진영에는 태아도 다른 사람과 동등한 생명권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낙태 반대자"라고 부릅니다.

**최근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계에서는  
성경이 낙태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돌스 판결 이후, 낙태와 관련된 새로운 주법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주들에서 이전에는 시행할 수 없었던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거나 시행하기 시작했지만, 다른 주에서는 낙태에 관한 더 적은 제한을 요구했습니다.<sup>4</sup> 대법원 구성의 변화와 민주당의 좌편향적 행보와 함께, 이러한 새로운 법률은 낙태가 국가적 대화의 중심에 서도록 보장했습니다.

또한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계에서는 성경이 낙태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종 열정과 에너지로 주장되는 이러한 논쟁은 기독교인들에게 낙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이 낙태를 지지하거나 허용한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유명 인사들 중 한 명인 라파엘 워녹 상원 의원(D-Ga.)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해왔으며, 정기적으로 낙태를 지지하는 자신의 신앙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2020년 후보였던 워녹은 트위터에 “저는 찬성하는 목회자입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sup>5</sup>. 상원 의원으로서 그는 대법원이 로 판결을 뒤집은 것을 비난하며 “로 대 웨이드는 뒤집어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 저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으며, 선택에 대한 깊은 변함없는 존중을 가지고 있습니다.”<sup>6</sup>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다른 지도자들도 기독교가 낙태를 지지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에 한 목회자는 “기독교 성경에는 낙태를 비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sup>7</sup>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 9월, 당시 피트 부티지지(Pete Buttigieg) 시장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낙태 찬성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하며, “성경에는 생명이 어떻게 호흡으로 시작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sup>8</sup>

**성경에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낙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성경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동을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낙태 논쟁의 논쟁적이고 도덕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 판결이 뒤집히고 미국 국민들이 선출된 대표를 통해 다시 한 번 의미 있는 낙태법을 제정할 수 있게 된 지금, 미국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사실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성경은 생명이 수태 또는 출생과 함께 시작된다고 가르칩니까? 낙태는 살인입니까? 이러한 질문과 다른 질문들에 대해 우리는 성경에 분명한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교회는 수세기 동안 이 논쟁과 씨름해 왔으며, 따라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적인 응답을 표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것들은 기독교인이 낙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의 관련 구절들을 살펴보고, 역사적으로 저명한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입니다. 인격에 대한 문제도 논의될 것입니다.

## 용어 정의 및 토태 마련

특정 구절을 논의하기 전에 용어를 정의하고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낙태란 무엇입니까?

'낙태'는 의학적으로 '유도 낙태' 또는 '임신 중절 시 태아를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행위'로 알려진 것을 의미합니다.<sup>9</sup> 유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산의 의학 용어는 '자연 유산'이지만, 유산은 태아를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낙태'라고 할 때는 자궁외 임신 치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 의료 기술상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태아의 생명을 끝내기 위한 치료는 아닙니다.

선택적 낙태는 유도 낙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92%를 차지합니다.<sup>10</sup> 선택적 낙태의 경우 산모의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아기는 건강합니다. 즉, 선택적 낙태는 건강한 여성에게 시행되며 건강한 아이를 자연스럽게 출산할 수 있는 임신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선택적 낙태는 관계 문제, 경제적 어려움, 부모가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경우, 경력 문제, 부모의 신체적 및/또는 정신적 부담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요청됩니다.

미국 가족 계획 연맹의 전 회장의 이름을 딴 낙태 찬성 연구 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에 따르면, (산모나 아기의) 건강 합병증 때문에 낙태했다고 응답한 여성은 7%에 불과하며, 강간으로 인해 낙태를 한 경우는 0.5%에 불과합니다.<sup>11</sup>

## 인격이란 무엇입니까?

낙태 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대화는 이렇게 요약됩니다. 발달 중인 아기가 사람입니까? 즉, 생물학적으로 인간이라는 것만으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으로 간주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추가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격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가장 어린 인간 배아는 신진 대사, 성장, 자극에 대한 반응, 생식 등 생물학적 생명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합니다.

발생학은 새로 형성된 접합체(수정란)가 고유한 유전적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고유한 개체라는 사실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의 종합적인 연구에 따르면 생물학자의 95%가 수정과 함께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다는 생물학적 관점을 확인했습니다(조사에 참여한 생물학자 5,502명 중 5,212명).<sup>12</sup> 또한, 가장 어린 인간 배아는 생물학적 생명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네 가지 기준인 신진대사, 성장, 자극에 대한 반응, 생식을 모두 충족합니다.<sup>13</sup>

그러나, 낙태 찬성 지지자들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은 인격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생물학적 의미에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도덕적 지위, 즉 인격은 수태 후, 어느 시점에 나타나거나 달성되는 자질 또는 지위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낸시 피어시가 '인격론'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육체와 비물질적인 마음 또는 영혼을 분리하는 인간에 대한 두 계층적 관점입니다. 피어시의 말을 빌리자면, 인격체 이론은 "살아있는 인간의 몸에는 가치를 두지 않고 우리의 모든 가치를 마음이나 의식에 두는 이론"입니다."<sup>14</sup>

인격체 이론의 중요한 문제점은 인격체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 윤리 학자들은 신경 활동, 추론 능력, 자기 동기 부여 활동 및/또는 자기 인식 등 매우 다양하고 다소 자의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인격체 성립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버드 신학교에서 26년간 가르친 생명 윤리 학자 조셉 플레처는 인간의 생명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15가지 특성들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목록에는 최소 지능, 자제력,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감각, 타인과의 관계 능력, 호기심, 신뢰질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제안이 제시하는 인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사실, 다양한 인지 기능의 유무에 따라 인격이 결정된다면 많은 의문이 즉시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하려면 함수가 얼마나 개발되어야 합니까? 누가 또는 어떤 프로세스로 이를 결정합니까? 이러한 질문에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이해되는 인격이 생물학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인류학적, 철학적 개념이라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생물학에 대한 통찰력 없이 인격을 정의하려는 시도는 자의적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피어시는 지능과 같은 대부분의 특성은 정량적인 척도로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즉,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sup>15</sup> 완전히 발달한 성인은 자기 인식, 추론 능력, 지능과 같은 특성을 다양한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인식이나 자제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다운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닙니까? 과거를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 환자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까? 혼수 상태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질문은 생물학과 유전학에 근거하지 않은 인격에 대한 관점을 채택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간단히 말해,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는 범주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위적으로 고안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교묘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인격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그리스도인은 인격과 인간됨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성경적 세계관은 이 대화에 어떤 기여를 하며, 이것이 낙태의 도덕성과 어떻게 연결되니까?

**사람의 생명이 존재할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도덕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째,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인격을 정의하려는 시도는 윤리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인간에 대한 인지적 또는 발달적 관점에 근거하여 인격을 정의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는 개념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에 수반되는 많은 변수와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개인성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근거는 생물학과 유전학입니다<sup>16</sup>.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인간의 인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추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있는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학자 존 제퍼슨 데이비스는 "낙태와 관련하여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태아를 인격체로 간주하시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성경이 태아의 인격성을 분명히 암시한다면 기독교인은 교육적, 종교적, 입법적 조치를 통해 태아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sup>17</sup> 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다음의 피할 수 없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태아의 인격성을 증명합니까?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편의를 위해 태아를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선택적 낙태에 반대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태아의 인격에 관한 중요한 구절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낙태를 반대하는 친생명 윤리를 채택해야 합니다.<sup>18</sup>

## 성경이 낙태에 대해 말하는 것

창세기 1장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가르칩니다(창 1:26-27).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적어도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독특한 방식으로 대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sup>19</sup> 이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며 고유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진리는 인격권 논쟁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 낙태를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주장은 태아가 고유한 인격체라는 점입니다. 성경에는 이 진리를 강조하는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종합하면, 태아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 제기됩니다.<sup>20</sup>

## 시편 139:13-16

태아의 인격과 관련하여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은 시편 139:13-16으로, 다윗 왕이 태중에 있는 자신을 다루신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 139:13-16)

이 구절에서 다윗은 태어나지 않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개인적인 것으로 언급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던 사람은 도덕적 가치가 없는 비인격적인 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성하고 함께 엮어 가시는 다윗이었습니다. 태아기부터 시편을 쓰는 성인까지 연속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존 제퍼슨 데이비스는 "출생 후의 관점에서 말한 다윗의 찬양(14절)은 13, 15, 16절에 묘사된 태아기 개인과 자신의 정체성을 가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sup>21</sup>

태아의 개인적 정체성은 인칭 대명사 "나"와 "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강조됩니다. 이 언어는 태내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가정하고 태내 초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연속성을 확인합니다.<sup>22</sup>

**임신은 맹목적이고 우연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신이 아주 작은  
 세부 사항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자신의 태아 발달을 되돌아보면서 태중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경이롭다"고 찬양합니다. 임신은 맹목적이고 우연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미래의 왕이 아직 태중에 있을 때 다윗에 대해 알고 계셨고 그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은 태중의 하찮고 도덕적이지 않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인격적인 대상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두렵고 기이하게 지어졌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139편의 인격 결정에 대한 관련성에 대해 리처드 B. 헤이스와 같은 일부 학자들은 이 구절을 시적 장르 내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의를 촉구합니다. 독자들에게 해석학(텍스트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학문)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상기시키는 것은 옳지만, 이 구절이 “낙태 문제와 매우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sup>23</sup> 헤이스와 달리 신학자 존 프레임은 시편 139편이 성경이 태아를 도덕적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언급하는 방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sup>24</sup> 또한 프레임은 성경에서 태아를 인격체가 아닌 다른 존재로 말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 시편 51:5-6

성경에서 태아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는 다음 구절은 시편 51:5-6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시 51:5-6)

이 구절에서 다윗은 밋세바와 간음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인정합니다. 실제로 5절에서 그는 자신의 죄악을 인생의 시작, 즉 잉태된 바로 그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의 근원을 추적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을 태중의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5절의 "죄 가운데"라고 번역된 구절이 다윗의 어머니를 가리킨다고 주장하지만, 구절의 전체 문맥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해석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편 51편은 분명히 다윗과 그의 죄에 관한 내용이며, 다른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다윗이 뱃속에 있는 자신을 지칭할 때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시편 기자는 태중의 존재를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태아를 인격화하며 아기를 도덕적으로 중요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윗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태내에서 하나님의 도덕적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구약 학자들은 "중심"과 "내 속"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를 가리킨다는 데 동의합니다.<sup>25</sup> 구약 학자 피터 켄트리는 6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주님은 얼룩진 곳에서 진리를 원하셨고, 병든 곳에서 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켄트리에 따르면, "얼룩진 곳"과 "병든 곳"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인간의 자궁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sup>26</sup>

## 어머니의 뱃속에서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도덕법과 관계가 시작된 도덕적 존재였습니다.

켄트리는 5-6절의 문학적 구조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쳐 준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다윗은 실제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의 본성의

일부였던 자신의 무력함, 즉 도덕적 부적절함을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도덕적 무력감을 극복할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켈트리가 결론을 내립니다. "태아에게 도덕적 요소가 수반되도록 신성한 이미지가 자궁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sup>27</sup> 다시 말해, 다윗은 배아 상태에서도 도덕적 존재로서의 지위(잉태 순간부터 자신의 인격이 구별됨)로 인해 자신의 존재 안에 이미 도덕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도덕법과의 관계가 시작된 도덕적 존재이자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상속자였습니다.<sup>28</sup>

## 누가복음 1:39-45

아마도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인격에 대한 가장 분명한 확인은 누가복음 1장의 서술일 것입니다. 이 구절의 시작 부분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니, 이러므로 나실 아기를 거룩하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였다.(35절)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즉시 임신 6개월이었던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누가는 39-45절에서 그들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그 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급히 유다의 한 마을인 산간 지방으로 가서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맞이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듣자 아기가



*Meine Seele erhebet den Herren, und mein Geist freut sich Gottes meines Heilandes!  
Lc. Luc. 1:47*

벧속에서 뛰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외치기를,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구절의 몇 가지 세부 사항은 태아의 인격에 대한 놀라운 긍정을 드러냅니다.

39절의 표현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의 메시지를 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엘리사벳에게로 갔다는 좋은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했을 때 임신 초기였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임신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고 아마도 1~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sup>29</sup> 이 사실은 두 여성 간의 다음 대화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들었을 때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고 말합니다. 엘리사벳은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라고 외칩니다.

이 교환의 세 가지 세부 사항은 이 구절이 얼마나 친생명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 "뛰어놀았습니다". 이것은 자궁에서 개인적인 인간 활동의 증거입니다. 엘리사벳을 통해 우리는 요한이 응답한 동기가 기쁨, 즉 사람에게 귀속되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예수님에 대해 요한의 뛰어노는 반응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요한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선구자라는 사명이었습니다(누가 1:17, 요 1:6-8, 19-23, 3:28, 30 참조). 따라서, 아직 태중에 있었지만,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sup>30</sup>

**태중의 예수님은 비인격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 엘리사벳과 태아 모두에게 주님으로서 합당한 존경을 받습니다.**

둘째, 엘리사벳은 대부분의 여성이 임신한 사실조차 모르는 시기에 마리아를 어머니로 지칭합니다.<sup>31</sup> 놀랍게도, 그녀는 마리아가 “내 주님의 어머니”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배아 상태, 즉 자궁에 착상되기 약 2주 전의 상태에서도 엘리사벳의 ‘주님’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sup>32</sup> 태중의 예수님은 비인격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 엘리사벳과 태아 모두에게 주님으로서 합당한 존경을 받습니다.

셋째, 엘리사벳의 단어 선택이 중요합니다. 특히, 그녀는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44절). 그리스어 βρέφος(브레포스)는 태아를 지칭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출생 후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헬라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예수님을 “구유에 누인 아기”라고 부를 때 이 단어가 사용됨).<sup>33</sup>

이 구절에 대한 마지막 관찰은 엘리사벳(41절)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요한(15절)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세부 사항을 언급함으로써, 독자들이 엘리사벳과 요한의 반응이 적절하며, 비록 뱃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 면전에 있는 것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신학적인 요점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임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콧 레이는 이 구절에 대한 자신의 성찰을 같은 요점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는 “성육신의 중요성은 비록 온전히 파악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예수의 탄생 시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인정된다... 즉, 성육신은 예수의 실제 탄생 수개월 전에 시작된 것으로 인정된다.”<sup>34</sup>고 말합니다.

## 예레미야 1:4-5 및 이사야 49:1b

태아의 인격성을 확인하는 또 다른 구절로는 예레미야 1장 4~5절과 이사야 49장 1절b가 있습니다. 두 구절 모두 구약의 주요 선지자들은 잉태부터 인간의 삶에 대한 높은 관점을 제시합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 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렘 1:4-5)

이사야서에서 미래의 메시아에 관한 네 개의 “종의 노래” 중 두 번째 노래는 그 종은 태어나기 전부터 사역할 운명을 타고 났다고 확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 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사 49:1b)

주목할 점은 예레미야와 주의 종 모두 태중에 있을 때 각자의 소명에 ‘봉헌’, ‘임명’ 또는 ‘부름’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예레미야의 경우, 하나님은 선지자가 태어나기 전에 그를 “형성”하셨고 “알고 계셨다”고 설명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어른이 된 선지자와의 관계와 유사하게 태아 선지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태아기 예레미야와 출생 후 예레미야 사이에는 분명한 연속성이 존재하며, 태아기 예레미야는 훗날 예레미야가 수행하게 될 동일한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여호와와 종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서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주님의 예언자적 부름을 받은 주님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심장하게도 종은 하나님께서 태중에 계실 때 자신의 이름을 지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을 태어나기도 전에 특별한 봉사를 위해 구별하여 세우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몇 구절 후에 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에서 “자신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정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자신을 지으셨다고 설명할 때 확인됩니다(5절)

예레미야와 주의 종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서 그분을 섬기도록 형성되고 부름을 받습니다. 태내에서 하나님과 자녀의 인격적 관계는 태아가 완전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 추가 구절

태아가 인격을 소유한다는 성경의 견해를 반복하는 다른 구절로는 욥기 3:3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낮과 ‘남자가 잉태되었다’고 말한 밤이 사라지게 하소서.” 흥미롭게도 탄생과 잉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스콧 레이는 “태어난 아이와 잉태된 아이는 같은 사람으로 간주됩니다.”라고 말합니다.<sup>35</sup>

욥기 10장 8절에는 욥이 “주님의 손으로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으나 이제 주님은 나를 완전히 파괴하셨습니다” 라고 한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태에서 지음 받은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13:3-5에는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천사는 여인에게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vv. 4-5)고 지시합니다. 천사는 14절에서 포도주를 마시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금지를 반복합니다. 특히, 삼손의 어머니는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나실인의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즉, 수태 때부터 제한이 적용되며 어머니가 천사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는 더럽혀질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 존 프레임은 “따라서 삼손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잉태된 사람입니다. 삼손과 다윗이 일반적인 규칙의 예외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으므로, 모든 태아는 잉태부터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sup>36</sup>



창세기 25장 22~23절은 이 주제를 이어가는 또 다른 구절입니다. 여기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창 25:23).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야곱은 아직 뱃속에 있을 때 형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약속의 전달자로 선택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태아와 개인적인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 세기가 지난 후 창세기의 이 구절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선택하신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 때문에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 그녀[리브가]는 ‘나이가 많은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롬 9:11-13). 바울이 분명히 말했듯이, 창세기 25장에는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는 선하거나 악한 일을 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임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족장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을 선택하십니다.<sup>37</sup>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태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시 한번 놀랍게 엿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인간 조직의 비인격적 융합물이 아닙니다. 그는 우주의 신이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존재입니다.

**삼손, 다윗, 야곱, 욥, 바울은 모두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다른 구절로는 시편 22편 10절에서 다윗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시작부터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의존을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태내에서 시작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욥기 31장 15절에서 욥은 자신의 종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변호합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욥은 태어나지 않은 생명, 즉 자신과 종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 다른 구절은 출애굽기 21:22-25입니다. 히브리어 문법과 구문과 관련된 광범위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구절의 핵심은 모세 언약에 따라 태아를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힘을 합쳐 임신한 여자를 때려서 아이가 나왔지만, 아무런 해가 없으면, 여자를 때린 사람은 반드시 그 여자의 남편이 부과하는 대로 벌금을 물어야 하며, 재판관들이 정하는 대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해를 입히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 눈으로, 이에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때림에는 때림으로 갚아야 합니다.  
(출 21:22-25)

이 법은 임신부와 태아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두 남성이 싸우다가 실수로 임신부를 치는 상황입니다. 여성이 교통 사고를 당해 조산이 발생했지만 여성이나 아이에게 피해가 없는 경우, 과실이 있는 남성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여성이나 아동에게 해를 끼친 경우, 보복의 법칙(렉스 탈리오니스)을 적용하여 범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엄마와 아이 모두 법에 따라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상황에서 렉스 탈리오니스의 적용은 독특합니다. 비슷한 상황(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서도 "종신형"이 아닌 "무기 징역"에 처해졌습니다.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피난처 도시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학자 웨인 그루덴은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를 위해 임신부와 태아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율법을 제정하셨음을 의미합니다."<sup>38</sup>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구절은 갈라디아서 1장 15 절입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구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도록 구별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때에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왔습니다. (갈 1:14-17)

문맥상 바울은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한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전기적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구별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복음을 전하라는 자신의 소명에 대해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궁 속의 ‘나’는 이후 은혜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라비아로 가서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나’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아의 태내에서부터 서신을 쓰고 있는 성인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성경의 또 다른 예입니다.<sup>39</sup>

**성경은 의심할 여지 없이  
태아의 인격을 긍정함으로써  
분명한 낙태 반대 윤리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의심할 여지없이 태아의 인격성을 확인함으로써 분명한 생명 존중 윤리를 제시합니다. 태중에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묘사하는 구절(시 139:13~16)부터 예레미야, 이사야, 바울 등 선지자와 사도가 태중에 있을 때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고 성별된 구절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모든 생명을 소중하고 고유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처음부터 낙태에 반대하는 교회

낙태와 기독교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신자들이 외롭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교단의 기독교인이 성경이 낙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심지어 낙태 시술을 칭찬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더욱 증폭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거의 모든 저명한 지도자와 권위자(신학자, 목회자, 교회 협의회 등)가 공개적으로 낙태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간행물의 첫 번째 부분에서 논의된 인간의 삶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는 소수의 의견이나 고립된 교단이나 종파의 견해가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교회는 1세기 이래로 낙태에 대해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태아 생명의 가치에 대해 일관되게 성경을 해석해 왔으며, 신학자, 목회자, 교회 공의회 등 기독교 역사상 거의 모든 저명한 지도자와 권위자들은 공개적으로 낙태에 반대해 왔습니다.

다양한 상황과 압력, 다른 중요한 신학적 이슈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회가 태아의 인격을 긍정하고, 낙태를 규탄하는 데 있어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은 이 문제에 대해 기독교 지도자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 어떤 말을 해왔는지 설문 조사한 결과입니다.

## 초기 교회

생명의 신성함, 특히 태아의 인격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기독교가 탄생한 그리스-로마 문화의 관습과 모순되었습니다. 사실, 낙태는 그리스도 이후 첫 3세기 동안 로마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실행되었습니다. 2세기 산부인과 전문의인 소라노스(c. A.D. 98-138)는 로마 여성들이 간통의 결과를 숨기고자 하는 욕구, 여성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 자궁이 너무 작아 전체 배아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 산모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세 가지 주요 이유로 낙태를 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sup>40</sup>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 즉 인구 과잉과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욕구도 낙태의 이유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sup>41</sup> 요약하면, 평균적인 로마인들은 태아와 유아의 생명에 대해 매우 낮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74년 기독교인들의 촉구로 이러한 관행이 불법화될 때까지 로마 제국에서는 영아 살해, 아동 유기, 낙태가 여전히 흔했습니다.<sup>42</sup>

1세대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낙태를 명백히 정죄한다는 신념으로 낙태를 반대했던 것은 이러한 도덕적으로 어두운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sup>43</sup> 첫째, 예수님의 가르침에 담긴 사랑의 우선순위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13절에서 예수님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막 12:31). 사랑에 대한 강조는 기독교인들이 어린이(태아 및 버려진 영아)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예수님의 높은 관점은 낙태에 대한 교회의 견해를 알려준 성경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에 어린이를 포함하신 횟수를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마 19:14, 막 10:14, 누가 18:16).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셨지만, 가르침에 어린이가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번은 어린이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누가 17:2)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태아의 인격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결합되어 낙태에 대한 초기 교회 지도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생명관이 낮은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을 충실히 가르치기 위해 1세대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낙태가 비성경적이고 최악된 행위라고 믿었기 때문에 낙태를 강력하게 정죄했습니다.

## **초기 기독교 문헌인 디다케(AD 50-120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낙태하는 아이를 죽이는 자"를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기독교 문헌인 디다케(AD 50-120년)에는 낙태가 기독교인이 피해야 할 죄악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디다케에서 금지된 행동 목록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남색하지 말며, 음행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마술을 행하지 말며, 약을 쓰지 말며, 낙태하지 말며, 영아를 살해하지 말며, 네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지니라."<sup>44</sup> 나중에 디다케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낙태하는 아이 살인자"를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sup>45</sup> 바나바 서신(AD 70~132년 사이에 쓰여진)의 디다케

주석에 따르면 "네 이웃을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 낙태로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 생성된 것을 죽여서는 안 된다."<sup>46</sup>고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155-215)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인 죄를 숨기기 위해 "낙태를 서두르고 낙태 약물을 사용하여, 태아와 함께 인간의 사랑을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된 인간의 본성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sup>47</sup>



아테나고라스

아테네고라스(133-190)는 "약물을 사용하여 낙태를 하는 여성은 살인을 저지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궁 속의 태아를 피조물로 간주하므로 하나님의 보살핌의 대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sup>48</sup>라고 썼습니다. 다른 곳에서 아테나고라스는 황제에게 기독교인들이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 과정에서 아테네고라스는 "낙태약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살인자이며 낙태에

대해 사람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신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자궁 속의 태아는 동물이 아니며, 태아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sup>49</sup>



테르툴리아누스

2세기 후반에 터툴리안(155~220)은 기독교인들이 영아 살해를 자행한다고 주장하는 이교도 비평가들에게 대응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반박문에서 "살인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태내에서 잉태된 것을 파괴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설명하며 "태아가 아직 사람으로 형성되고 있을 때 파괴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태어나는 것을

막는 것은 살인을 가속화하는 것이며, 태어나는 영혼을 빼앗아 가거나 태어나는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열매가 씨앗에 있듯이 사람이 될 사람은 사람입니다.”<sup>50</sup> 터툴리안은 말을 아끼지 않고 낙태를 살인과 동일시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태아를 낙태하는 것과 성인을 살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동등한 행위였습니다.

또 다른 통찰력 있는 구절에서 터툴리안은 태아가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어머니에게 명확히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는 “이 문제에서 최고의 교사이자 판단자, 증인은 출산과 관련된 성입니다. 지금 임신 중이거나 이미 아이를 낳은 어머니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태내에서 생명의 꿈틀거림이 느껴집니까? 들고 있는 짐의 위치가 바뀌면 사타구니가 떨리고 옆구리가 흔들리며 배 전체가 옥신거리지 않습니까? 이 순간은 내 안의 아이가 살아 있고 장난기 넘친다는 기쁨과 확신을 주는 원천이 아닙니까? 아이의 불안이 가라앉으면 즉시 걱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sup>51</sup>라고 썼습니다.

4세기 무렵에는 낙태에 대한 개별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성명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집단적으로 낙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양에서는 엘비라 시노드(305/6)에서 낙태를 강력하게 비난했고, 동양에서는 안시라 공의회(379)에서 낙태에 대한 교회의 반대를 확고히 했습니다.



요한  
크리스소스툼

4세기에 요한 크리스소스툼(c. 349-407)는 혼외 정사에 연루되어 낙태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자신의 부주의함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낙태를 추구하지 말라고 말하며 낙태를 반대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창녀를 창녀로만 남게 두지 않고 살인자로도 만들었습니다.”<sup>52</sup> 같은 세기에 가이사라의 바실리(330-379)는 자신의 의견을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고의로 낙태를 하는 사람은 살인죄의 처벌을 받습니다.”<sup>53</sup>

요컨대, 5세기에 이르러 낙태에 대한 가르침은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립되었습니다. 낙태는 살인의 한 형태이며 기독교인들은 생명의 편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 교회가 표명한 강력한 낙태 반대 입장은 수세기 동안 중단 없이 이어졌으며 교회의 영향력이 확산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정부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8세기 프랑크 왕국 샤를마뉴는 안시라 공의회(314년)의 결정을 이 땅의 법으로 채택했습니다. 안시라는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 유도 약물을 투여한 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sup>54</sup>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시대에는 낙태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는 그의 *신학대전*에서 태아의 도덕적 지위와 낙태 행위에 대해 논의합니다. 토마스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영혼화(인간이 영혼을 얻는 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이어 토마스는 이성적인 인간의 영혼이 임신 첫

몇 주 동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일단 영혼이 발생하면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 행위라고 말합니다.<sup>55</sup> 특히 토마스는 임신의 어떤 단계에서도 낙태를 옹호하지 않으며, 새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은 "본성에 반하는" 죄라고 말합니다.<sup>56</sup>

## 개혁 후

**종교 개혁 이후에도 다양한 신학 진영은 여전히 생명 존중을 고수했습니다.**

종교 개혁 이후에도 다양한 신학 진영은 친생명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16세기 가톨릭과 개신교 지도자들은 모두 태아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예를 들어, 존 칼빈은 "태아는 비록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지만, 이미 인간이며... 아직 누리지 못한 생명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sup>57</sup>라고 설명했습니다. 16세기에 교황 식스투스 5세는 낙태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오랜 견해를 되풀이했습니다. 1558년 교황 식스투스 5세는 *에프레나탐*이라는 제목의 교황 교서에서 “벧속의 태아를 소멸시키기 위해 독극물을 조달하고 이를 쏟아 부으며 사악한 범죄로 폭력적이고 시기적절한 죽음과 자손의 살해를 유발하려는 불경한 인간들의 잔인함과 무절제한 방탕을 누가 싫어하지 않겠는가?”<sup>58</sup>라고 말했습니다. 트렌트 공의회 교리 문답(1566년)에서는 낙태를 “가증스러운 범죄”로 묘사합니다.<sup>59</sup>

## 현대 교회

낙태에 대한 기독교계의 반대는 20세기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1945년 디트리히 본회퍼는 “어머니 벧속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태아에게 부여하신 생명권을 해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sup>60</sup> 이는 1960년대까지 모든 기독교 교파의 견해였습니다. 성 혁명이 절정에 달한 후에야 성공회, 미국 장로교회, 연합감리교회 등 많은 주류 개신교 교단에서 낙태에 대한 견해를 바꿨습니다.<sup>61</sup>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낙태에 대한 견해를 바꾼 교회들이 1920년대 이후 신학적 자유주의를 점점 더 많이 수용한 교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무오하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거부하는 것(이는 성경의 기적에 대한 기록,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경의 역사적 신뢰성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과 낙태 허용 사이의 상관관계는 성경의



신뢰성과 신빙성을 계속 믿었던 교단들이 태아의 인격에 대한 교회의 역사적 가르침을 고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가톨릭 교회<sup>62</sup>와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개신교 교단인 루터 교회-미주리 시노드,<sup>63</sup> 미국 장로 교회(PCA),<sup>64</sup> 하나님의 성회,<sup>65</sup> 남침례교,<sup>66</sup> 및 기타 많은 교단들은 신학 선조들과 함께 낙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낙태를 일관되게 반대해 온 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낙태를 "도덕적 소외"로 묘사한 1976년 이아코보스 전 대주교의 성탄절 회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sup>67</sup> 정교회에 대한 견해는 그리스 정교회 성직자인 스탠리 하라카스 목사는 "정교회는 낙태를 살인, 즉 인간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중단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교회가 낙태를 마지못해 묵인하는 유일한 경우는 배아나 태아를 낙태하지 않으면 산모가 사망할 것이라는 의학적 의견이 우세한 경우입니다."<sup>68</sup>라고 말합니다. 정교회는 낙태가 태아의 생명을 끝내고 결혼과 가족 제도를 공격하기 때문에 낙태를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복음에 대한 희망 교회의 미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낙태에 관해 성경을 해석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제안하는 모든 사람에게 맞서야 합니다. 동시에 낙태가 이론적인 논의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친절과 사랑으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복음은 낙태 경험이 있거나 낙태를 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낙태 산업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복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전 미국 가족 계획 연맹 의료 책임자인, 캐티 올트먼 박사가 그 예입니다.<sup>69</sup> 올트먼 박사는 낙태를 직접 경험한 낙태 의사였습니다. 수년간 낙태 업계에서 일하던 그녀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구원을 찾았고, 지금은 주 및 국가 차원에서 생명 보호 법안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sup>70</sup> 낙태 업계를 떠난 다른 낙태 종사자의 예로 버나드 나단슨(Bernard Nathanson) 박사는 미국 가족 계획 협회(NARAL Pro-Choice America)의 공동 창립자이며, 애비 존슨(Abby Johnson)은 전 미국 가족 계획 협회(Planned Parenthood) 클리닉 디렉터입니다. 두 사람 모두 낙태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전의 잘못을 회개했으며,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용서를 찾았습니다.<sup>71</sup>

**낙태 운동가였던 올트먼, 나단슨, 존슨의 변화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들에게도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올트먼, 나단슨, 존슨 등의 변화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진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신 구절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라고 약속합니다. 구약 성서에서도 하나님의 용서가 강조되어 있으며, 저자는 이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시 130:3-4). 낙태는 심각한 죄이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용서하십니다.

낙태의 죄를 포함하여,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네 허물을 뽀뽀한 구름이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저를 구속하였음이니라”(사 44:22)라고 말씀하실 때 용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자신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도 베드로(요한복음 21:15-25)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 3:9)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행 3:19)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합니다.

## 결론

생명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태아의 인격성을 명백히 확인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성경을 선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교회의 변함없는 입장이었으며, 태아도 도덕적 지위를 가지며 잉태되는 순간부터 사람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다윗, 예레미야, W와 같이 하나님이 태아와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뿐만 아니라, 누가 복음 1장과 같이 뱃속의 아기에게 개인적인 속성 및 감정(예: 기쁨)을 부여하는 본문에서도 이 진리를 가르칩니다. 로마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등 교회의 일치된 증언은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 현대 사회는 낙태 문제로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워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낙태를 지지하거나 성경의 증거가 인격에 대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가르칩니다. 태어났거나 태어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며 고유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낙태는 의도적으로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로 부도덕하고 죄악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낙태의 멸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혼란스러워하는 이 질문들에 대해 성경은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데이비드 클로슨(<1>M.Div.)은 패밀리 리서치 카운슬의 성경적 세계관 센터 디렉터로서 성경적 세계관에서 생명, 인간의 성, 종교적 자유 및 관련 이슈를 연구하고 저술하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비드는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 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편집을 도와주신 로라 그로스베르트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 참고

- 1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에 포함된 사생활 보호권에 근거하여 태아가 생존할 수 있을 때까지 낙태를 선택할 수 있다. 생존력은 자궁 밖에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보통 임신 후 24~28주 사이에 발생한다." 로 대 웨이드 참조, 410 U.S. 113 (1973). 미국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사가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신 중 어느 시점이든 낙태가 합법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도 대 볼튼 판결(로 판결과 같은 날 발표)에서 "건강"을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가족적, 여성의 나이"를 요소로 포함시켰습니다. 도 대 볼튼, 410 U.S. 179 (1973) 참조. 로(Roe)에 대한 판결 분석은 메리 쇼호, "세속적인 청중을 위한 최고의 낙태 반대 주장", 가족 연구 위원회, 2021, <https://www.frc.org/brochure/the-best-pro-life-arguments-for-secular-audiences>을 참조.
- 2 돕스 대 잭슨 여성 건강 기구, 597 U.S. \_\_\_\_ (2022).
- 3 낙태 옹호 단체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스스로를 "찬성"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 여성의 행진은 트위터에 "우리는 단지 찬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낙태에 대해 당당하고 변함없이 찬성합니다. 동의하시면 리트윗하십시오." 여성의 행진, 트위터 게시물, 2022년 9월 29일, <https://twitter.com/womensmarch/status/1575498637764808705> 참조. 또한, 2022년에 미국 가족 계획 연맹은 낙태 지지자들이 "나는 낙태를 찬성합니다" 대신 "나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지지합니다"라고 말할 것을 제안하는 언어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긍정적인 활동 유지하기'를 참조. 낙인 타파, 오해 방지 및 포용성을 위한 가이드,"

Planned Parenthood, 2022년 8월 26일, 2022년 9월 29일에 접근, <https://www.plannedparenthood.org/blog/keeping-activism-positive-a-guide-to-busting-stigma-avoiding-myths-and-being-inclusive>.

- 4 각 주의 생명 존중법 현황에 대한 최신 개요는 [FRC.org/ProLifeMaps](https://www.frc.org/ProLifeMaps).에서 확인.
- 5 라과엘 워녹 목사, 트위터 게시물, 2020년 12월 8일, <https://twitter.com/reverendwarnock/status/1336490801413632002>.
- 6 더 뷰, "Raphael Warnock 상원 의원,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조지아주 여성들과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YouTube 동영상, 2022년 7월 18일, <https://youtu.be/xuR0NB2wiDw>.
- 7 소피 노백, "우리 교회는 여성을 신뢰하며 진보적 신앙 단체, 낙태 반대 서사에 반대하다." *The Texas Observer*, 2019년 8월 28일, <https://www.texasobserver.org/my-congregation-trusts-women-progressive-faith-groups-counter-anti-abortion-narratives/>.
- 8 윌 마우레, "Buttigieg, "생명은 '첫 호흡으로' 시작된다며 임신 말기 낙태 입장을 정당화하다", CBN, 2019년 9월 10일, <https://www1.cbn.com/cbnnews/politics/2019/september/buttigieg-justifies-late-term-abortion-stance-by-saying-life-starts-with-first-breath>.
- 9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낙태'에 대한 AAPLOG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AAPLOG, 2022년 10월 5일 접근, <https://aaplog.org/what-is-aaplogs-position-on-abortion-to-save-the-life-of-the-mother/>.
- 10 다른 유형의 유도 낙태에는 치료적 낙태와 우생학적 낙태가 있습니다. 치료적 낙태는 산모의 건강을 위해 시행되며, 우생학적 낙태는 아기에게 다운증후군과 같

은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그 위험이 있는 경우 시행됩니다. 낙태에 대한 논의에서 수정된 정의 폴 파인버그(Paul D. Feinberg)와 존 파인버그(John S. Feinberg), *용감한 새 세상을 위한 윤리*, 제2판(휘튼, 일리노이주: 크로스웨이북스, 2010), 73-75.

- 11 피셔 B. 로렌스, "미국 여성이 낙태를 하는 이유: 양적 및 질적 관점", *성 및 생식 건강의 관점* 37 (2005): 113-14, <https://www.guttmacher.org/journals/psrh/2005/reasons-us-women-have-abortions-quantitative-and-qualitative-perspectives>.
- 12 스티븐 앤드류 제이콥스, "생물학자들의 '생명이 시작되는 시기'에 대한 합의," SSRN, 2018, <https://dx.doi.org/10.2139/ssrn.3211703>.
- 13 칼 세이건, *빌리언과 빌리언* (뉴욕: 랜덤 하우스, 1997), 163-79.
- 14 낸시 피어시, *너의 몸을 사랑하라: 삶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 (그랜드 래피즈, 미시간주.: 베이커 북스, 2018), 20.
- 15 피어시, *몸을 사랑하라*, 53.
- 16 존 제퍼슨 데이비스는 "올바른 의미의 인간은 인간 존재의 초기 순간부터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격체란 단순히 의식이 있는 출생 후의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종의 모든 구성원, 즉 고유한 삶의 궤적과 발달의 미래를 가진 유전적으로 구별되는 인간 개체를 의미합니다. 태아가 '잠재적 인간 생명'을 대표한다고 말하기보다는 태아가 큰 잠재력을 가진 실제 인간 생명을 대표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존 제퍼슨 데이비스, *복음주의 윤리,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 제3판(뉴저지 주 필립스버그 P&R 출판, 2004), 155-56 참조조. 인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낸시 피어시는 다음과 같이 통찰력 있는 의견을 제

시합니다: "기독교적 인격 개념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존재로 부르셨으며 계속해서 나를 알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위대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를 획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엄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뿌리를 둔 내재적인 것입니다." 피어서, *너의 몸을 사랑하라*, 참조 55.

17 존 제퍼슨 데이비스, *낙태와 그리스도인: 모든 신자가 알아야 할 것* (필립스버그, 뉴저지: 장로교 및 개혁 출판사, 1984), 40.

18 존 파인버그와 폴 파인버그가 낙태에 관한 토론에서 언급했듯이, 비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대한 호소를 원론적으로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성경 이외의 다른 것에 호소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하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인격에 대한 견해를 공식화하기 위해 성경에 호소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존 S. 파인버그와 폴 D. 파인버그, *용감한 새로운 세상을 위한 윤리 참조*.

19 데이비드 클로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윤리 및 종교 자유 위원회, 2016년 5월 4일, <https://erlc.com/resource-library/articles/what-does-it-mean-to-be-made-in-gods-image/>.

20 웨인 그루뎀은 *기독교 윤리학에서 낙태에 관한 장에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성경적 도덕적 추론 입문*. 그루뎀은 누가 복음 1:41-44, 시편 51:5, 시편 139:13, 창세기 25:22-23, 출애굽기 21:22-25, 누가 복음 1:34을 사용하여 태아의 인격과 낙태의 비도덕성을 주장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그루뎀의 주석은 웨인 그루뎀, *기독교 윤리를 참조하시오: 성경적 도덕적 추론 입문* (Wheaton, Ill: 크로스웨이, 2018), 566-71.

21 데이비스, *낙태와 기독교인: 모든 신자가 알아야 할 것*, 42. 데이비스는 시편 139편을 묵상하면서 “그[다윗]의 언어는 그의 개인적 정체성이 그의 의식적 기억에 국한되지 않고, 의식적 기억을 넘어 태아 발달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적 통제의 초기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구절은 개인의 정체성이 자궁에서 시작하여 출생 후 삶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연속체라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22 켄 매그너슨, *기독교 윤리 입문* (그랜드 래피즈, 미시간주: 크레겔 아카데미, 2020).

23 리처드 B. 헤이스, *신약 성경의 도덕적 비전: 신약 성서 윤리에 대한 현대적 입문* (뉴욕: 하퍼 콜린스, 1996), 148.

24 존 프레임은 성경에서 태아를 인격체로 언급하는 다른 예로 욥기 31:15-18, 시편 22:9, 호세아 12:3을 인용합니다. 존 프레임, *그리스도인의 삶 교리, 주권 신학* (필립스버그, 뉴저지: P&R 출판, 2008), 722.

25 데이비스, *낙태와 기독교인: 모든 신자가 알아야 할 것*, 51.

26 피터 젠트리와의 개인 서신, 2019년 8월 22일. 피터 젠트리는 켄터키주 루이빌에 위치한 남침례 신학 대학 교에서 도널드 윌리엄스(Donald L. Williams) 구약 해석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7 박사와의 개인 서신 피터 J. 젠트리. 시편 51편의 문학적 구조에 대한 젠트리의 주장에 대한 전체 주석과 증거는 에드워드 R. 달글리시, *고대 근동 패턴주의에 비추어 본 시편 51편* (네덜란드 라이덴)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브릴 출판사, 1962), 121.

28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은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존 프레임에 따르면, 기독교 교회

는 이 구절에서 우리 각자가 아담의 죄와 그의 최악된 본성을 물려받았다는 원죄 교리에 대한 구약의 주요 증거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전체 논의는 프레임, 그리스도인의 삶 교리, 723.을 참조하십시오.

- 29 데이비스, *낙태와 기독교인: 모든 신자가 알아야 할 것*, 55-56.
- 30 대럴 복은 요한의 응답이 "그가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그의 일을 시작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럴 L. 복, *누가복음 1:1-9:50*, 베이커 신약성경 주석(ECNT)(그랜드 래피즈, 미시간주: 베이커 아카데미, 1994), 135.
- 31 스콧 레이는 인격과 태어나지 않은 자의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스콧 레이, *도덕적 선택* 참조: *윤리 입문*, 제3판(그랜드 래피즈, 미시간 주.: 존더반 아카데미, 2009), 130.
- 32 데이비스는 이 구절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태중의 인격은 태아의 인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데이비스, *낙태와 그리스도인* 참조: *모든 신자가 알아야 할 것*, 55-57.
- 33 다른 구절로는 누가 복음 2:12, 18:15, 사도 행전 7:19, 딤후 2장 3:15 등이 있습니다. 프레드릭 W. 땡커, 월터 바우어, 윌리엄 F. 아른트, *신약 성경 및 기타 초기 기독교 문학의 그리스어-영어 사전*, 제3판(시카고: 시카고 대학교 출판부, 2000), 183-84.
- 34 레이, *도덕적 선택: 윤리 입문*, 130.
- 35 Ibid, 128.
- 36 프레임, *그리스도인의 삶 교리*, 723.

- 37 데이비스는 데이비스, 낙태와 그리스도인에서 이 점을 주의 깊게 전개합니다: 모든 신자가 알아야 할 것, 47.
- 38 그루템, 기독교 윤리: 성경적 도덕 추론 입문, 570.
- 39 이 구절을 소개해 주신 로드니 클로슨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 40 존 T. 누난, 편집, 낙태의 도덕성: 법적 및 역사적 관점 (캠브리지, 매사추세츠...: 하버드 대학 출판부, 1970), 4.
- 41 엘빈 J. 슈미트, 영향력 아래: 기독교가 문명을 변화시킨 방법 (그랜드 래피즈, 미시간 주.: 존더반 펴. House, 2001), 56.
- 42 슈미트는 가이사라의 바실은 4세기에 기독교인들을 동원하여 원치 않는 임신에 직면한 여성들을 돌보는 데 적극적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또한 바실리우스의 "노력으로 발렌티누스 황제가 374년에 영아 살해 및 아동 유기와 함께 낙태를 불법화하도록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라고 언급합니다. 교회의 첫 3세기 동안 로마 문화와 낙태의 광범위한 수용에 대한 간략한 연구는 슈미트, 영향 아래에서 참조하십시오: 기독교가 문명을 변화시킨 방법, 55-60.
- 43 누난은 낙태에 대한 초대 교회의 태도에 대한 논의에서 두 가지 주제를 모두 강조합니다. 누난, 낙태의 도덕성 참조: 법적 및 역사적 관점, 7-8.
- 44 누난, 낙태의 도덕성: 법적 및 역사적 관점, 10.
- 45 Ibid.
- 46 바나바 19.5. 누난, 10.에서 인용됨

- 47 페다고지 2.10.96.1, 그리스 기독교 첫 3세기 작가 [첫 3세기의 그리스 기독교 작가들]. 누난에서 인용, 11.
- 48 피어시, 너의 몸을 사랑하라, 68.
- 49 아테네고라스, 기독교인을 위한 대사관, 패트롤로지아 그라에카 6.919. 누난, 낙태의 도덕성에서 인용: 법적 및 역사적 관점, 11.
- 50 낙태에 대한 터툴리안의 견해에 대한 간략한 논의는 누난, 낙태의 도덕을 참조: 법적 및 역사적 관점, 12-13.
- 51 테르툴리아누스, 데 아니마 25. 3. 마이클 J. 고먼, 낙태와 초대 교회에서 인용: 그레코로만 세계의 기독교, 유대교, 이교도 태도(유진, 오레곤주: Wipf & Stock Pub, 1998), 55-56.
- 52 크리소스톰, 로마인에게 보내는 서신, PG 60.626.27, 호밀리 24. 누난, 낙태의 도덕성에서 인용: 법적 및 역사적 관점, 17.
- 53 바질, 문자 188, 32.672 페이지. 누난, 낙태의 도덕성에서 인용: 법적 및 역사적 관점, 17.
- 54 누난, 낙태의 도덕성: 법적 및 역사적 관점, 14, 18.
- 55 캐서린 브린다무어, "성 토마스 아퀴나스 (c. 1225-1274)," 배아 프로젝트 백과사전, 2007년 11월 11일, 2019년 9월 13일에 접근, <https://embryo.asu.edu/pages/st-thomas-aquinas-c-1225-1274>.
- 56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태아 생명에 대한 존중": 교회의 끊임없는 가르침," 팩트 시트, 2019년 9월 13일에 접근됨, <https://www.usccb.org/issues-and-action/human-life-and-dignity/abortion/respect-for-unborn-human-life>.

- 57 존 칼빈, 칼빈 주석, 번역. 찰스 빙엄 (미시간 주 그랜드 래피즈) Baker, 1981), 3:42. 슈미트, *영향력 아래에서 인용: 기독교가 문명을 변화시킨 방법*, 59.
- 58 교황 식스투스 5세, "사도헌법 '에프래나탐'," 역. 안토니오 트리마카스(1558년 11월 29일). 이 문서의 요약은 <https://embryo.asu.edu/pages/effraenatam-1588-pope-sixtus-v>을 참조하십시오.
- 59 "트렌트 공의회 교리서," 가톨릭 입문서, 212, <https://www.saintsbooks.net/books/The%20Roman%20Catechism.pdf?bcs-agent-scanner=2fdf10f8-fcf3-e449-8f6b-3e0314628084>.
- 60 디트리히 본회퍼, *윤리학*, 6권, 디트리히 본회퍼 저작집 (미네아폴리스, 미네소타주: Fortress Press, 2009), 206.
- 61 역사적으로 미국 연합 감리 교회, 미국 복음 주의 루터 교회, 미국 장로교회, 성공회, 미국 침례 교회, 미국 연합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는 주류 개신교에 속하는 교단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성공회, 미국 장로 교회, 미국 연합 그리스도 교회 등 일부 교단은 '생식 선택권을 위한 종교 연합'에 가입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낙태에 찬성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합 감리 교회와 복음 주의 루터 교회와 같은 다른 교단에서는 낙태권을 일부 제한적으로 지지합니다. 전체 논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비드 마시, "주요 종교 단체의 낙태에 대한 입장", 퓨 리서치 센터, 2016년 6월 21일,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16/06/21/where-major-religious-groups-stand-on-abortion/>을 참조하십시오.

62 낙태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식 입장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부 2장 2절 5조 2271행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세기 이래로 교회는 모든 낙태가 도덕적 악이라고 단언해 왔습니다. 이 가르침은 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접 낙태, 즉 목적이거나 수단으로서 고의로 낙태하는 행위는 도덕법에 심각하게 위배됩니다." [http://www.vatican.va/archive/ENG0015/\\_P7Z.HTM](http://www.vatican.va/archive/ENG0015/_P7Z.HTM)참조.

63 루터교 미주리 시노드의 회장인 매튜 해리슨 목사는 2019년 뉴욕과 버지니아 주지사가 주에서 낙태를 확대한 후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리슨은 "루터교 미주리 시노드는 강력한 시민권과 적극적인 정부 참여를 옹호합니다. 우리는 우리 땅의 법을 준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심에 따라 불의한 법, 특히 하나님의 법과 모든 인류를 구속하는 자연법을 위반하는 법에 반대하는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낙태와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다른 수단들은 사회의 기초를 형성하는 이러한 자연법과 도덕법을 위반합니다." 매튜 해리슨, "뉴욕, 일리노이주에서 낙태를 확대하는 주지사 조치에 관한 LCMS 회장 성명", 기자, 2019년 1월 24일, <https://blogs.lcms.org/2019/lcms-presidents-statement-regarding-gubernatorial-actions-expanding-abortion-in-new-york-and-illinois/>.

64 미국 장로교(PCA)의 공식 입장은 칼 보그, "낙태에 관한 광고 임시 위원회 보고서," PCA 역사 센터, 1978, <http://www.pcahistory.org/pca/studies/2-015.pdf>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65 하나님의 집회, "인간 생명의 신성함: 낙태와 생식 문제(2010년 8월 9-11일 회기 총노회에서 채택)," 2019년 9월 12일 접근, <https://ag.org/Beliefs/Position-Papers/Abortion-Sanctity-of-Human-Life>.

- 66 물론 이것이 항상 남침례회(SBC)의 입장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SBC는 공식적으로는 성경을 신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낙태에 찬성하는 견해를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태에 대한 SBC의 입장은 1970년대의 찬성에서 1980년대 중반에는 확실히 찬성하는 입장으로 발전했습니다. 2018년에 통과된 최신 결의안에는 "우리는 모든 태아의 완전한 존엄성을 확인하고 산모의 육체적 생명을 구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 행위를 비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결의문 전문은 "모든 인간의 완전한 존엄성을 재확인하며", 미국 남침례교 총회, 2018년 6월 12일, <http://www.sbc.net/resolutions/2289/on-reaffirming-the-full-dignity-of-every-human-being>을 참조하십시오. 낙태에 대한 남침례교의 입장에 대한 역사는 데이비드 로치, "남침례교가 어떻게 낙태 반대자가 되었는가," *Biblical Recorder*, 2015년 1월 19일, <https://www.brnow.org/news/How-Southern-Baptists-became-pro-life/>을 참조.
- 67 스탠리 S. 하라카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슈에 대한 정교회 입장", 미국 그리스 정교회 대교구, 1985년 8월 12일, <https://www.goarch.org/-/the-stand-of-the-orthodox-church-on-controversial-issues>.
- 68 Ibid.
- 69 "캐티 올트먼 박사", 샬롯 로지어 연구소, 2019년 9월 12일 접근, <https://lozierinstitute.org/team-member/kathi-aultman-m-d/>.
- 70 알렉산드라 드샌티스, "하원 공화당, 출생자 법안 청문회 개최", *National Review*, 2019년 9월 11일, <https://www.nationalreview.com/2019/09/born-alive-bill-hearing-house-republicans/>.

71 로렌 케일러, '생명 옹호 개종자' 참조: 버나드 나단슨 박사, "가족 연구 위원회, 2019년 8월 14일, <https://www.frc.org/blog/2019/08/pro-life-converts-dr-bernard-nathanson>. 애비 존슨의 개종에 대한 논의는 벤자민 만, "애비 존슨, 생명 옹호 전환과 가톨릭 개종에 대한 세부 사항 공개", 가톨릭 뉴스 에이전시, 2011년 1월 13일, <http://www.catholicnewsagency.com/news/abby-johnson-reveals-details-of-pro-life-turnaround-and-catholic-conversion/>을 참조.



# 파트너

주 가족 정책 협의회는 국가 차원에서 가족 연구 협의회가 하는 일, 즉 공론화를 형성하고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 일을 주 차원에서 수행합니다. 이 단체들은 생명, 가족, 종교의 자유에 대한 Facebook의 약속을 공유합니다. 다음 파트너와 함께 이 리소스를 공동 게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AKFamily.org](http://AKFamily.org)



[FamilyCouncil.org](http://FamilyCouncil.org)



[CaliforniaFamily.org](http://CaliforniaFamily.org)



[CTFamily.org](http://CTFamily.org)



DE FAMILY  
POLICY  
COUNCIL

[DelawareFamilies.org](http://DelawareFamilies.org)



[FLFamily.org](http://FLFamily.org)

**hawaii family forum**

[HawaiiFamilyForum.org](http://HawaiiFamilyForum.org)

*The*  
**FAMILY**   
**FOUNDATION**

[KentuckyFamily.org](http://KentuckyFamily.org)

*Louisiana*  
**family**  
FORUM

[LAFamilyForum.org](http://LAFamilyForum.org)



[CCLMaine.org](http://CCLMaine.org)



Massachusetts  
Family Institute

[MAFamily.org](http://MAFamily.org)



MINNESOTA  
FAMILY COUNCIL

[MFC.org](http://MFC.org)



NEBRASKA  
FAMILY ALLIANCE  
Advancing Family, Freedom, and Life

[NebraskaFamilyAlliance.org](http://NebraskaFamilyAlliance.org)



Cornerstone

[NHCornerstone.org](http://NHCornerstone.org)



*New York*  
Families

NEW YORKER'S FAMILY RESEARCH FOUNDATION

[NewYorkFamilies.org](http://NewYorkFamilies.org)



NC FAMILY  
POLICY COUNCIL

[NCFamily.org](http://NCFamily.org)

Center FOR  
Christian  
Virtue



Public Policy. Engagement. Education.

[CCV.org](http://CCV.org)



[PAFamily.org](http://PAFamily.org)



[FamilyHeritageAlliance.org](http://FamilyHeritageAlliance.org)



[TXValues.org](http://TXValues.org)



[FamilyFoundation.org](http://FamilyFoundation.org)



[FPIW.org](http://FPIW.org)



[WIFamilyCouncil.org](http://WIFamilyCouncil.org)

# 어떻게 보시나요?



**FRC의 성경적 세계관 시리즈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오늘날의 대부분의 문제에  
적용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음 리소스와 더 많은 정보를 [frc.org/worldview](http://frc.org/worldview)에서 확인하십시오.



CENTER FOR  
**BIBLICAL WORLDVIEW**

FRC 선물



CENTER FOR  
BIBLICAL WORLDVIEW

## 성경적 렌즈를 통한 문화 참여

성경적 세계관 센터는 성경적 세계관을 성장시키고 강화하고자 하는 개인, 가족,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가족, 지역 사회, 공공 광장에서 신앙을 발전시키고 수호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frc.org/worldview](http://frc.org/worldview)를 방문하여

최신 CBW 동영상, 기사, 간행물, 인터뷰를 보십시오

# NOW WE LIVE

*How Your Faith Can Restore a Broken World*

## 우리가 오늘날 모두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공감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적 세계관 센터는 서밋 미니스트리와 협력하여 제작한  
6주짜리 동영상 시리즈 *나우 위 라이브*  
를 소개합니다. 이 무료 세계관 성경공부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풍부한 토론을 불러일으키고, 매일 보는 주제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도전할 것입니다!

### 포함



토니 퍼킨스



제프 마이어스



리 스트로벨



알리사 차일더스



커크 카메론



션 맥도웰

[frc.org/worldview](http://frc.org/worldview)를 방문하여  
나우 위 라이브 동영상 시리즈에 접근하십시오.



SUMMIT  
MINISTRIES



# 성경은 낙태와 태아의 인격에 대해 무엇이라 고 말합니까?

성경은 생명이 수태 또는 출생과 함께 시작된다고 가르칩니까? 낙태는 살인입니까? 이러한 질문과 다른 질문들에 대해 성경은 분명합니다. '낙태 반대 참여를 위한 성경적 원칙'은 성경의 주요 구절을 조사하고 교회 역사를 통틀어 신학자들의 지혜를 참고하여 기독교인들이 낙태와 인격권에 대한 문제를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frc.org